

[보도자료] 쿠팡, 제주도와 수산물 판매 확대 MOU “지역 어가 판로 확대”

2025. 7. 17.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왼쪽)과 오상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제주 수산물 및 가공식품 로켓프레시 통한 판로 확대 기대
- 쿠팡, 전국 지자체와 협력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2025. 07. 17. 서울 — 쿠팡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쿠팡은 제주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신규 매입하고,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오늘(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상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어가 및 수산가공업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쿠팡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로켓프레시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이 신선한 제주 수산물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쿠팡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활용해 제주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쿠팡과의 협력은 제주 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쿠팡과 협력해 제주 수산물의 가치를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쿠팡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수산물을 더 많은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쿠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고객에게 선보이며, 지역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